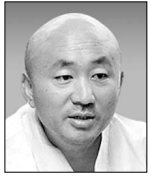


일주문



청소년단체장 신병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신병희는 1월 8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2004년 청소년 단체장 및 관계인사 신년회를 개최했다.



'달라리 라마 대중법회' 봉행
여수 석전사 주지 진옥 스님은 지난해 12월 29일~31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 남갈사원에서 '한국인을 위한 달라리 라마 대중법회'를 봉행했다.



자광 스님 초청 '지장경 특강'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 주지 우학 스님은 1월 9일 4층 대법당에서 김천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초청, '지장경 특강'을 봉행했다.



성주사암주지연합회장 취임
경북 성주 선석사 주지 선문 스님은 최근 선석사에서 결성된 대한불교 조계종 성주군 사원주지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21세기 청소년 시민교육
안민포럼 위원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1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서강대 동문회관에서 '청소년 시민교육' 강연을 개최한다.



대불련 총동무회, 운영위원회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무회장 성기태 총주대 총장은 1월 14일 서울 계동 인근 식당에서 2004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한다.



불교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 임명
한 불교방송 방송본부장 홍사성 씨는 1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으로부터 불교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임명받았다.



제47차 정기 대의원총회
대한불교청년회 정성욱 회장은 2월 1일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2004년도 사업계획 예산 승인을 위한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갖는다.



창립 1주년 기념법회
인천광역시불교연합회 전인배 회장은 1월 15일 오후 5시 인천 정도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11-722-0211



소도원범우회 흥보실장에
한국소비자보호원 범우회 고문 송병준 분장조성 2국장은 1월 1일자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흥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터뷰 WFBY대회 참석 수미 런던

“청년 불자의 증가 가장 큰 보람”

지난 2001년 아마존닷컴의 베스트 북으로 선정되며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도 많은 화제를 뿌렸던 미국 청년불자들의 수행기 <청바지를 입은 부처>가 출판된 후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서구불교에 변화가 있었나? 가장 큰 변화는 기성세대 불자가 젊은 세대 불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청소년, 청년층의 불자보다 중·장년층의 불자 비율이 높다. 최근 많은 기성세대 불자들이 청소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들을 불자로 이끄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청소년 동아리, 대학 등에서 포교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 <청바지를 입은 부처>가 출판된 후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서구불교에 변화가 있었나?

- 가장 큰 변화는 기성세대 불자가 젊은 세대의 불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청소년, 청년층의 불자보다 중·장년층의 불자 비율이 높다. 최근 많은 기성세대 불자들이 청소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들을 불자로 이끄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청소년 동아리, 대학 등에서 포교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 개인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면?

- <청바지를 입은 부처> 집필을 마치고 난 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여행했다. 여행을 통해 아시아 불교교구의 문화를 배우면서 잘못 알고 있던 불교상식과 지식들을 바로 잡았다. 스스로 '불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안고 내 안의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 한국불교를 직접 경험한 소감은?

- 생활 속의 불교, 사회 참여적인 불교 역할이 늘어난 등 다양성이 존중받고 있어 한국불교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 특히 불자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구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참여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불교를 접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서구 불자들의 대부분이 개인의 안락과 개발을 목적으로 명상 등의 수행에만 치우쳐 보지 힘든 모습이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청바지를 입은 부처>의 후속편을 준비 중이다. 이전 책과 비슷한 구성으로 1부에 해당하는 일부 분에는 10대들의 종교적 고민을, 뒷부분에는 튀턴한 스님 등 스님들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숙해 지는 종교적 성찰의 과정과 발전을 보여주려 한다.

한국불교의 사회참여 배울만해 '청바지를 입은 부처' 후속 준비중



수미 런던의 '청바지를 입은 부처' 표지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제1회 한국불교플레이스테이션 장준희 씨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불교 소재 작업 계속할 터”

“이번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소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불서도 접했고 불교교리도 공부했습니다. 이 모두가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준희 씨는 무엇보다 불교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평소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었기에 이번 공모에 한번 도전해 보아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불교소재 작품들을 몇 편 더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2004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은 1월 3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2004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일환으로 '사랑의 히터 전달식'을 개최했다. 서울 성북구 신세계 백화점 미아점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1인용 히터 210개가 성북구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됐다.

지역 어르신과 함께 시무식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은 1월 1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지역 어르신과 함께 하는 2004년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사회 복지법인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을 비롯해 이 지역 노인 40여 명이 동참했다.

제1기 어르신 강사 양성 아카데미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는 1월 8일 센터 3층 자원봉사실에서 '제1기 어르신 강사 양성 아카데미'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노인의 수화, 서예, 한문 등의 재능을 발휘하여 어린이들에게 강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탈북자를 위한 한마당 개최



서울시립노인요양원(원장 김우택)은 1월 1일 요양원 강당에서 민족복지 실현을 위한 '탈북자와 함께하는 신년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3년 탈북한 인민배우 이연선 씨 외 2명이 손품금 및 바이올린 공연 등으로 진행했다.

Advertisement for '명당목욕방' (Myeongdang Mok-yok-bang) featuring a bathtub and text about health benefit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지광원' (Jigwangwon) featuring a building image and text about a health center and its services.

Advertisement for '관절영양제 "글루코사민사카트리지"' (Joint Nutrition Supplement 'Glucosamine Saccarid') featuring product images and detailed text.